

섬진강 볼레길

■ 코스 지도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강



■ 관광자원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유기시설
2	1004 장미공원	곤충, 장미	생태
3	덕양서원	신승겸장군	문화재
4	섬진강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철로자전거)	유기시설
5	호곡나루터	나루터와 줄배	교통수단
6	두계산골 외갓집마을	두계어살	체험, 설화
7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계절별 체험거리	체험
8	섬진강천문대	밤하늘 별자리	천체체험
9	가정역	기차펜션	설화
10	심청이야기마을	심청 전설	설화

1. 섬진강 기차마을

전라남도 곡성의 섬진강 볼레길은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한숨 쉬어 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자, 지난날의 시간을 아스라이 떠올리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이곳을 보세요. 작은 기차역 대합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모두들 뭔가 잔뜩 기다리는 표정들인데요, 이때 솜사탕 같은 수증기를 내뿜으며 과거 속에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증기기관차'입니다.

이곳은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죠. 어 여기엔, 60년대 우리나라 옛 거리를 그대로 재연해 놓은 영화세트장이 철로 옆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재미를 느끼게 한답니다.

기차 마을 안에서는 구 곡성역을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촬영됐던 곳이기도 하죠. 재밌는 건 그 영화에 이곳만 출연한 게 아니라 곡성주민들도 엑스트라로 많이들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을 오는 동안 만났던 곡성주민 분들중엔 영화배우도 계셨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이후에도 이 기차마을에서는 드라마와 영화가 자주 촬영된다고 하니, 운이 좋으면 촬영현장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겠네요.

옛 추억 물씬 풍기는 기관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강과 국도, 그리고 철길이 굽이굽이 산자락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서 말이죠. 기차안에서 바라보는 산, 강, 섬진강변은 그저 한 폭의 그림입니다.

2. 1004 장미공원

추억의 기차여행으로 흐뭇해진 마음을 싱그러운 꽃향기로 채워보시겠어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 잔치! 이곳은 1004 장미공원입니다.

장미는 떠올리기만 해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감을 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온 장미가 무려 1004 종, 송이로 보면 300만 송이가 피어난다고 해서 ‘천사 장미공원’으로 불립니다

사방에 피어난 장미꽃길을 따라 걷다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활짝 피는 것을 느낍니다.

5월부터 눈 내리기 직전까지 피어있는 장미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보세요.

특히 이곳엔 세계장미협회에서 명예의 장미로 인정한 아홉 종의 왕중왕 장미들도 있으니깐요, 그걸 발견하는 행복도 놓치지 마시구요!

장미꽃 향기에 충분히 취하셨다면 신비한 곤충의 세계로도 떠나볼까요?

장미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 찾으셨나요? ‘섬진강 천적곤충관’입니다.

입구에 마스크트인 붉은 딱정벌레가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곳의 마스크트가 딱정벌레가 된 이유는 곡성의 섬진강 주변 친환경 자연농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진딧물의 천적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약을 치지 않고 무당벌레를 키워서 진딧물을 제거하는 거죠.

천적곤충관은 이렇게 섬진강의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이뤄졌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3. 덕양서원

왕건 (다급하게)아니, 신장군, 왜 갑자기 서는 것이요?
적들이 쫓아오고 있소.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소!

신승겸 (결연) 대왕께서는 저와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왕건 무어라? 지금 적군이 쫓아오는 이 판국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신승겸 (결연) 대왕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군대 모두 위험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옵니다. 해서...

왕건 해서...?

신승겸 송구스럽지만 제가 대왕의 옷을 입고 적군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대왕께서는 병사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아뢰옵니다.

왕건 (가슴 아픈) 신장군... 내 어찌.. 당신의 목숨을...

신승겸 대왕께서는 다른 생각 마시고 대왕을 따르는 이 병사들과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부디 옥체보존 하시옵소서....

왕건 (가슴 아픈) 신..장군... 아... 내 어찌 자네를 사지에 몰아넣으랴 한단 말이냐...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 본 적 있으시죠?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운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최후를 그린 내용인데요.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에서 왕건의 군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신승겸 장군은 왕건의 옷을 입고 견훤의 군사들을 유인해 군대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지요. 그야말로 살신성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전리품이라며 후백제군은 신승겸 장군의 목까지 베어갔는데요, 나중에 왕건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 황금으로 목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주고 또 '장절'이라는 시호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절을 지닌 장절 신승겸 장군의 고향이 곡성인데요,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에는 선조때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덕양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이란 주로 문관들의 정신을 기리고 배우는 곳이지만 덕양서원의 경우는 무관이었던 신승겸 장군을 모신 곳이란 점이 특이하지요.

'덕양'이란 이름은 숙종 때 하사된 것이라 하네요.

덕양서원 정문인 홍살문을 들어서면 곡성 읍내가 한 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구요, 서원 옆에는 선비의 기품을 닮은 연밭이 있는데요, 시원한 전경과 연밭에서 풍기는 선비의 기품은 신승겸 장군의 호쾌한 풍모를 떠올리게 합니다.

4. 섬진강 레일바이크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곡성을 여행해 볼까요?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철로 자전거, 바로 섬진강 레일바이크입니다.

전국에는 꽤 많은 레일바이크가 있지만 이곳은 섬진강 줄기를 따라 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폐철로 위에 그대로 얹어놓은 자전거는 연신 페달을 굴려야 나가는데요, 2인용, 4인용이 있어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아주 큰 인기랍니다.

가끔씩 은근슬쩍 페달에서 힘을 빼 연인과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선 안 되겠죠?

레일바이크는 기차마을 안에 있는 짧은 '순환형 레일 바이크'와 30~40분 정도 걸리는 '섬진강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산수 좋기로 유명한 침곡역에서 가정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기거한다고 할 정도로 멋진 통명산 자락과 좁은 섬진강폭이 어우러진 이 구간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그곳을 자전거로 타고 달리는 기분,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구불구불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달리다보면 맑은 공기가 폐 속을 정화시켜주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기분 좋다고 과속은 금물! 평균 속도는 시속 15~20킬로미터를 지켜야 하구요,

앞 자전거와는 10미터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호곡나루터

푸른 하늘 은하수를 이곳에다 옮겨놨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돛대도 없고 샷대도 없이 오로지 줄 하나에 의지에 강을 건너는 줄배가 있는 곳,
이곳은 호곡 나루터입니다. 호곡나루터는 섬진강변에서 유일하게 줄배가 자리를 지키는 곳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곡성읍 오곡면 침곡리에 위치한 호곡나루터는 줄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자동차로 다리를 건너고 동력선으로 강을 건너는 세상에 줄배라니. 참 낯선 단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섬진강변에는 예로부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줄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배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느 사이 종적을 감추었고 호곡나루터의 줄배만 오롯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곡나루터에서 줄배를 타고 단 몇 분이면 강 건너에 있는 호곡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줄배는 강을 건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동의 전령사가 아닙니까?

2011년 섬진강 유역에 큰 비가 내리자 섬진강 댐은 수문을 열고 많은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튼튼한 다리도 떠내려갈 만큼 섬진강의 수위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지만 호곡나루터의 줄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연약한 배 한척이 큰물을 이겨내다니... 호곡나루터를 아직도 줄배가 당당히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줄배는 강의 양쪽에 매어놓은 줄을 잡아당기면서 건너게 되는 배인데요,

줄을 잡고 당기면 흔들흔들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럴 때면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물살때문에 발바닥이 간질간질 하지요.

잔잔한 물결이 주는 이런 오묘한 느낌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어요.

호곡 나루터의 줄배를 두고 추억거리로 하나 남겨놓고 관광객들만 기다리는 거 아니냐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줄배는 여행객들에겐 반가운 교통수단이지만, 이곳 어린이들은 매일 이 줄 배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줄배는 이곳을 가끔 찾는 관광객들에겐 낭만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곳 아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6. 두계산골 외갓집마을

이 마을은 양쪽 산으로 막히고 그 사이를 냇물이 흐른다고 하여 '막을 두, 시내 계'라고 하여 두계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이 마을은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그야말로 전형적인 산골마을인데요, 따뜻한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구요, 또 그 분들을 모시고 사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인심이 후해서 여행객들은 손자, 손녀로 외할머니댁을 찾은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도 하게 되지요.

산골외갓집 체험마을...

시골외갓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편안한 복장으로 밭에 나가 채소를 거두고 눈에는 물길을 다듬어주고, 축사에는 여물도 놔주고, 과일을 따 보세요.

이곳 주민들이 운영하시는 민박집에 머물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호미질도 해보며 시골정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넉넉한 인심을 말이지요. 특히 일을 마친 겨울에는 황토방에서, 여름에는 마당 평상에 둘러 앉아 할머니께 옛날 이야기도 듣지요. 섬진강 줄기따라 전해 오는 옛날 이야기, 우리 할머니께 들어볼까요?

우리 마을에는 도깨비 어살과 마천목장군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마천목장군은 조선 태종 때 장흥부원군을 지낸 인물거든요...

이 사람이 국가에 공헌한 공도 크지만 효성이 아주 지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부모님께 고기를 잡아 드리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순자강.. 그러니까 지금의 섬진강에 어살을 만들었거든요...

왜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울 같은 거요... 근데 어살로 쓰인 그 돌이

도깨비 였던 거라... 도깨비들은 이 효성 지극한 장흥부원군을 돕기 위해서 어살이 되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 다시 도깨비로 되돌아갔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지요~

외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던 그 시절의 옛날 얘기..

이렇게나마 들으니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네요. 풍광에 취하고, 사람냄새에 취하고, 또 알싸한 나무향에도 취하니 벌써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느낀 사람사는 정과 흙이 주는 교훈, 오래도록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들어올 땐 몰랐는데 떠날 때 보니 두계산골 마을 입구 당산나무 옆 장승이

마치 배웅 나온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7. 가정 녹색농촌 체험마을

가정마을은 섬진강의 가장자리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가장마을'로 불리다 이것이 변하여 '가정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양 박씨의 마을로도 불리죠. 작은 실개천을 따라서 마을 안길로 들어서면 커다란 물방앗간이 옛 정취를 불러일으키고, 아담한 담장을 두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주 정겨운 마을이지요. 이 마을은 가정녹색체험 마을로 지정돼 있는데요,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한적하고 풍요로운 농촌체험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봄이면 산에 들에 돌아나는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마을 야산에서 은은하게 피어나는 배꽃 향기에 살짝 취해도 좋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섬진강에 뛰어들어 다슬기를 잡구요, 마을 앞 야영장에서 별을 바라보며 야영을 하는 것도 도시인들에게는 설레는 경험이죠.

가을이면 발갛게 무르익는 감을 따는 일이 아이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이고, 콩으로 두부를 만들거나 인절미를 만드는 일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신나는 체험입니다.

예로부터 가정 마을에는 과일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풍경도 아름답고 인심 또한 풍요롭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수확해 본 곡식들은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으니 여행객들은 더욱 더 즐거울 수밖에요.

섬진강변 어딜 가나 아름답고 푸른 경치로 유명하지만 이 마을 근방의 자연경관은 특히 더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곳 강변을 따라 지나가는 자전거 하이킹도 인기가 많죠?

하긴 무엇인들 안 좋을까요. 자연이 아름답고, 인심이 좋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곳!

이곳이 진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네요.

8. 섬진강천문대

곡성 섬진강에서 하루를 마감하기 좋은 곳이라면 이곳을 빼놓을 순 없을 겁니다.
섬진강 여행객들을 밤하늘로 불러 모으는 이곳, 섬진강 천문대지요.
특히 이 천문대는 섬진강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아주 쉬운데요,

천문대의 돔이 열리고 밤하늘이 펼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오리한 천체망원경보다 더욱 더 웅장한 섬진강변의 밤하늘의 세계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별이 갖는 이미지는 참 많죠? 누군가는 꿈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희망,
또 누군가는 미지의 세계라 하고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보고 사셨나요?

우리의 꿈, 희망, 호기심 가득한 미지의 세계와 그리운 사람을

잊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하늘, 자주자주 많이 바라보면서 생활하세요.

오늘 섬진강에서의 추억들은 분명 알알이 별이 돼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곡성 섬진강 볼레길에서 만든 추억도 별이 되어 어딘가에 반짝이고 있겠죠^^

9. 가정역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섬진강이 있고, 쪽 뺨은 17번 국도가 있어 외롭지 않은 철로길을 달려 온 증기기관차는 바로 이 곳 가정역에서 정차시간을 갖습니다. 침곡역에서 출발해 섬진강과 나란히 달려 온 섬진강 레일 바이크의 종착역도 가정역이죠. 이곳은 섬진강 줄기 중에서 풍광이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지역이니만큼 다양한 펜션들이 투숙객들을 기다리는데요, 옛날 통일호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기차펜션도 있고, 통나무 펜션도 있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숙소를 잡습니다.

이곳은 워낙 풍광이 아름다워 도착하면 산책을 거니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법인데요,

섬진강에 다리 하나가 보이죠?

가정역에서 건너편에 있는 가정마을로 가기 위해서 건너는 다리인데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인도교죠.

차량들은 그 밑에 있는, 물 위에 가까스로 떠있는 다리를 이용한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달빛을 씻는다’하여 세월교라고 불립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 다리를 ‘배고픈 다리’라 부르신다는데요, 배고픈 다리라고 해서 보릿고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건가하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교각이 없는 형상이 배고픈 사람의 배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었다고 해서

‘배고픈 다리’라 부르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해학은 참으로 기발합니다.

그런데 가정역의 다리에는 애달픈 사연이 있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가정역 건너편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다리가 생기기 전 마을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나룻배를 이용해 강을 건넜죠.

그런데 비가 무섭게 내리던 어느 해 여름. 퇴근을 하던 선생님과 함께

여덟 명을 실은 나룻배는 그만 물살에 뒤집히고 말았죠. 평화로운 마을에 일어난

대참사였습니다. 그 후 나룻배는 철거되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했는데요, 그 다리도 2010년에 홍수로 훼손됐고, 지금은 저렇게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졌죠.

그 다리의 이름은 ‘섬진강 출렁다리’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흐르고 있는 섬진강...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그만큼 더 애잔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10. 심청이야기마을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날을 세웠겠다. 우물가 두레박소리 얼른 듣고 나설적에 한편에 아이 안고 또 한편 지팽이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더듬 찾아가서 우물가 당도하여"

판소리 '심청가' 중 한 대목을 들려드린 이유, 아시겠지요? 곡성군에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곡성군 오산면에 있는 관음사에는 관음사연기설화인 <원홍장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설화가 심청전의 이야기 구조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원홍장설화>란 백제 때 장님인 원량의 딸 원홍장이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진나라 황후가 되었다는 설화인데 전체적인 구조가 심청전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곡성 오곡면에 심청이야기 마을이라는 한옥펜션 단지를 조성해서 심청의 감동적인 효행을 떠올리며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곳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한옥펜션입니다.

펜션의 외부모습은 옛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돼 있지만 내부는 현대식이라 편리합니다.

어린이들과 오시면 효행체험관도 한 번 둘러보세요. 하지만 이곳에선 뭐니뭐니해도 산책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산책을 다니시면 이웃들을 만나듯 심청전 주인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돌담길 골목골목 지팡이를 두드리며 우물가에서 심청이 젓동냥을 하는 심학규의 모습과 높은 파도에 안개가 자욱한 시퍼런 바다 속으로 뛰어든 심청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리 없는 여식을 기다리는 심학규의 모습은 왠지 더 짝한데요, 그 밖에 옥황상제의 명으로 연꽃 봉우리에 다시 태어나는 심청과 왕후까지 올라 맹인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만나 심학규의 눈이 떠지는 행복의 순간까지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모형들을 찾아다녀보는 것도 산책을 즐기는 방법이지요.

또 심청전 이야기 외에도 재밌는 벽화도 눈에 띄는데요, 심청이야기 마을 입구에

우리 고유의 놀이, 닭싸움과 말타기, 딱지치기를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눈길을 끄네요.

왠지 함께 편을 먹고 겨루고 싶어지는데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시작하여 이곳 심청이야기마을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던 '섬진강 볼레길'을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섬진강 볼레길은 단순히 둘러보는 길이라기 보다는 내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체험의 길'입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곡성과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